



도심 주차난 해결 '초소형 접이식 전기차'

가 1.65m까지 줄어든다. 기존 1대의 주차면적 당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이다. 13.6kWh(킬로와트시)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10분 동안 급속 충전하면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도심 속 주차난을 해결할 초소형 접이식 전기차 '아마딜로-T'가 KAIST 서인수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아마딜로-T'는 탑승정원 2명, 무게 500kg, 길이 2.8m로 경차 '모닝'보다 작다. 주차 모드로 전환하면 차량 뒷부분이 들려 앞유리를 덮게처럼 씌우면서 길이 1.65m까지 줄어든다. 기존 1대의 주차면적 당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이다. 13.6kWh(킬로와트시)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10분 동안 급속 충전하면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연협뉴스

10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Table with 6 columns: 분야, 기술수준(%), and 기술격차(년) for various countries. Rows include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and 전략기술 전체.

좁혀지는 韓·中 기술 격차 2년새 2.5년서 1.9년으로

광주·전남 연관 항공 우주분야는 4.5년 뒤쳐져

2012년 국가전략기술 평가

우리나라와 중국 간 주요 기술의 격차가 2년도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남과 연관된 항공·우주분야는 중국에 4.5년이나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소재와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는 중국보다 겨우 1.2년과 1.3년 앞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표한 '2012년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수준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7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핵융합기술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자·정보·통신 기술은 미국의 82.2% 수준에 기술격차도 2.9년에 불과해 세계 최고 기술에 가장 근접했다. 기계·제조·공정도 미국과 기술 격차가 3.8년으로 비교적 앞선 분야에 속했다. 한국은 120개 국가 전략기술 중 36개가 선도 그룹(최고 기술의 80~100%)에 진입했고, 83개는 추격 그룹(60~80%)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고 기술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영향력은 미국이 가장 컸다. 지난 10년간(2002~2011) 논문 영향력 지수는 미국(1.47), EU(1.16), 일본(0.86), 한국(0.73), 중국(0.35) 순이었다. 같은 기간 특허 점유율도 미국(47.2%), EU(16.6%), 일본(13.2%), 한국(8.5%), 중국(1.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프라 구축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대비 75.7% 수준으로 기술수준(77.8%)보다 다소 낮았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정부의 투자(66.8%~85.9%)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항공·우주(85.9%)와 재난·재해·안전(82.0%) 분야의 집중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산·학·연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별(기초·응용·개발), 연구주체별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조사의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수립할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등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은 중국보다 29개 기술이 3~7년, 68개 기술이 1~3년, 9개 기술이 1년 이하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우주 분야는 미국에 비해 94.5% 수준이었으며, 일본은 93.4%, 중국은 67%였다. 한국의 기술 격차는 미국보다는 4.7년, EU보다는 3.3년, 일본보다는 3.1년 뒤쳐졌다. 물론 2010년과 비교하면 EU와는 1.2년, 미국·일본과는 0.7년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이 2.5년 앞섰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이번에 1.9년으로 단축돼 기술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흠친 스마트폰 못쓰게 '킬 스위치' 넣는다

〈단말기 초기화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

내년 상반기 출시 제품에 도난방지기술 전면 탑재

원격 삭제·잠금 가능... 해외 팔아넘겨도 사용 불가

앞으로 스마트폰 도난 걱정을 덜게 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이 전면 탑재되고,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0만원대 고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휴대전화 도난사건이 잇따르자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이 탑재된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원격 잠금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들어 해외로 팔아넘겨도 거래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

까지 국내 모델에 이 기능을 넣기로 했으며, 이미 이 기능을 도입한 팬택은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을 위해 원격제어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잠금 앱 서비스 등을 확대 보급한다. KT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와 SK 텔레콤 'T가드 서비스'도 휴대전화의 부정 개통과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먼저, 휴대전화 신규 가입 때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바로 이달부터 시행하며,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11월부터 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F)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 제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표폰 개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통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온라인 개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했다. 부정가입이나 도난·불실실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폰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와 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알려 본인인 명의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94만건에 달했다.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도 지난 2009년 5575건에서 지난해 3만1107건으로 457% 급증했다.

서비스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알려 본인인 명의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94만건에 달했다.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도 지난 2009년 5575건에서 지난해 3만1107건으로 457% 급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혹시 나도 스마트폰 중독?

직장인 5명 중 4명꼴 위험군 노출 집중력 감소·목결림 부작용 호소

직장인 5명 가운데 4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히든캠퍼언이 직장인 65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이상 등급에 속했다.

한국기술개발원이 내놓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법'에는 '스마트폰을 잃으면 친구를 잃는 기분

이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등 10가지 항목을 물어 3개 이상에 해당되면 '위험군'에 속한다. 5개 이상이면 '중독 의심', 8개 이상이면 '중독 확실'로 판단된다고 한다.

조사대상 직장인들은 평균 4.6개였고, '5개'를 응답한 직장인이 19.6%로 가장 많았다. '10개 모두'

라고 응답한 직장인도 2.7%였다. 세대별로는 20대의 평균 개수는 '4.8개', 30대 '5.2개', 40대 '3.9개'였다.

스마트폰 중독 부작용으로는 26.2%가 '집중력 감소'를 호소했다. 이어 목 결림(23.6%), 수면장애(18.3%), 손가락·손목 저림(17.7%), 디지털 치매(7.8%)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TE 주파수 경매 19일 오전 9시 시작

미래창조부 입찰설명회

미래창조과학부는 통탄에불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2일 주파수 경매 참가를 신청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이들 3사를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3사는 이번 경매에서 1.8GHz 및 2.6GHz 대역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돈과 머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LTE 용 주파수 대역과 맞닿은 1.8GHz 대역을 노리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견제하면서도 자사 이익에 맞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협뉴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골든보석·골든전당포', 'YONAMJA(총장로점)', '도리원', '예술회관', '노다지식당', '남도한약방', '정열식당', '홍서각', '커피홀릭', '웹버하우스', '이건마루인테리어', '서원식당', '화순민물추어탕', '금산인삼홍삼', '피오레공인중개사사무소', '안경메니저(봉선점)', '제일반점', '중화루', '생태한마리', '천애저축은행광주출장소', '박당화랑', '석당화랑', '신신예술의집', '황금대지품', '동네식당', '한씨네대가추어탕'.